

[현대소설 TEXT 분석 필기 노트](by.이승모T 현장 강의용)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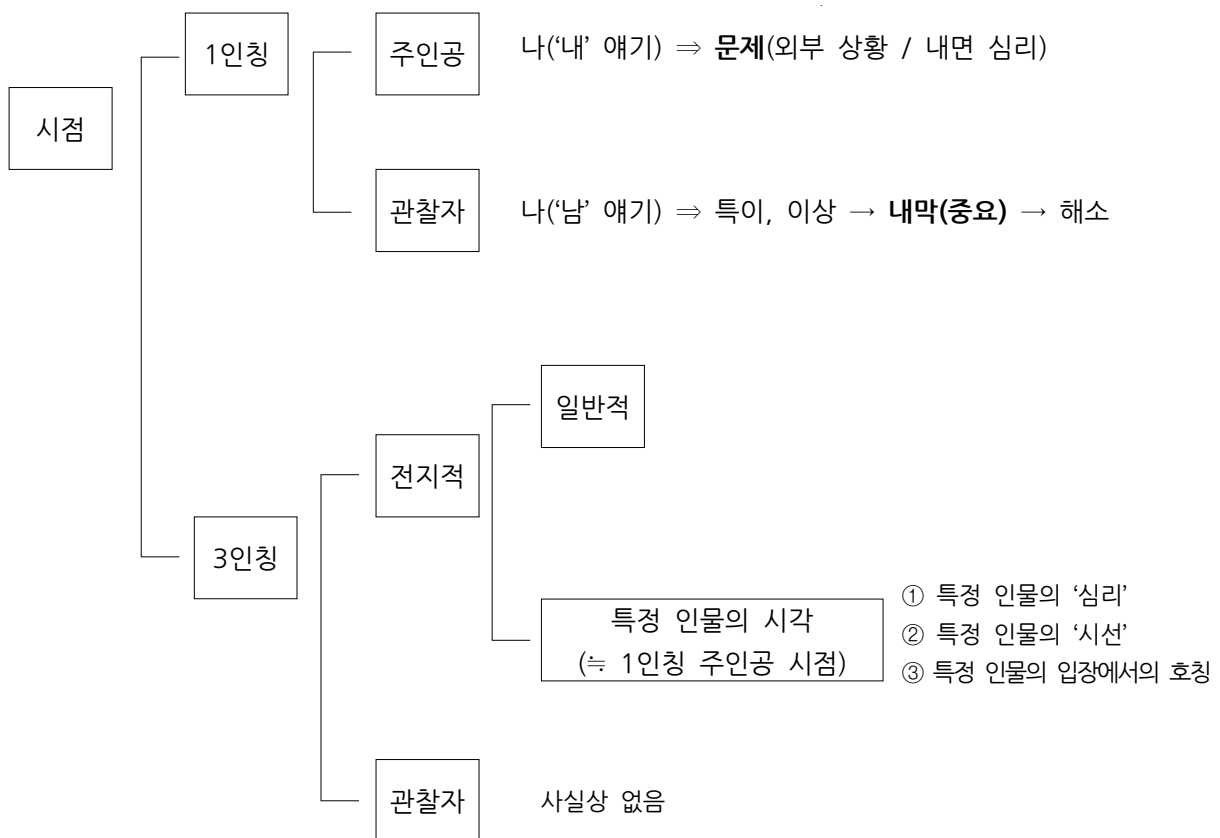
1. 현대소설 TEXT 분석(좁/혀/가/기)

1) <내용 설명형 보기> → [앞부분의 줄거리] → 지문 순서대로 읽으며 좁혀가기

2) 장면 단위로 끊어 읽기

(시간, 공간, 새로운 인물 등장, 새로운 사건의 시작)

3) 서술자(매우 중요)



[주요 설명]

- 소설을 읽다가 ‘나’가 보이면 체크, 읽다보니 ‘내’ 얘기를 하고 있으면 나의 문제 상황을 찾으며 읽는다.

- 소설을 읽다가 ‘나’가 보이면 체크, 읽다보니 ‘남’ 얘기를 하고 있으면,

① 남은 이상하거나 특이할 것이다. 혹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② <중략> 이후의 ‘내막’에 특히 집중한다.

- 3인칭에는 전지적 시점과 관찰자 시점이 있으나 수능에서 관찰자는 무시하자.

- 전지적 시점에는 일반적 전지적 시점과 특정 인물의 시각이 있다. 수능에서 너희들이 3인칭 소설을 본다면, 특정 인물의 시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단, 특정 인물의 시각은 지문 전체일 수도 있고, 지문의 일부일 수도 있다.

- 특정 인물의 시각은 1인칭 주인공과 유사하다. 즉 특정 인물에게 ‘문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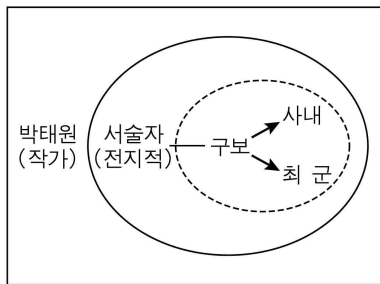
[참고] 특정 인물의 시각(특정 인물의 시각은 3인칭이다. 잊지 말기!)

“아버님, 어저께 성규 학교에 가셨어요?”

예사로운 말씨와는 달리, 굳어 있는 표정 위로는 낭패의 그늘이 짙 깔려 있었다. 금방 대답을 못하고 영 거추참한 형세로 **며느리(=민 노인 입장에서의 호칭)**를 올려다보는 민 노인의 면전에서, 송 여사의 한숨 섞인 물음이 또 떨어졌다.

“복을 치셨다면서요.” / “그랬다. 잘못했니?”

우선은 죄인 다루듯 하는 며느리의 힐문에 부아가 꾸역꾸역 치솟고, 소문이 빠르기도 하다는 놀라움이 그 뒤에 일었다(=민 노인의 심리).



[특정 인물의 시각]

이 사내는, 어인 까닭인지 구보를 반드시 ‘구포’라고 발음하였다. 그는 맥 주병을 들어 보고, 아이 쪽을 향하여 더 가져오라고 소리치고, 다시 구보를 보고, 그레 요새두 많이 쓰시우. 무어 별로 쓰는 것 ‘없습니다.’ 구보는 자기 가 이러한 사내와 접촉을 가지게 된 것에 지극한 불쾌를 느끼며, 경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와 사이에 간격을 두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딱한 사내는 도 리어 그것에서 일종 특의감을 맛볼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뿐 아니라, 그는 한 잔 십 전짜리 차들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그렇게 몇 병씩 맥주를 먹을 수 있는 것에 우월감을 갖고, 그리고 지금 행복이었을지도 모른다.

4) 현대 소설을 읽는다는 것 = 인물의 ‘상황’과 ‘심리’를 파악하는 것.

- ① 인물의 발화가 길면 : 감속하며 차분히 읽는다.(긴 발화 안에 상황과 심리가 다 있다.)
- ② 내면 서술이 길면 : 내면 서술이 길다는 것은 현대소설에서는 불안하거나 걱정이 많은 것이다. 즉 하나의 심리를 그냥 주절주절 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심리 파악 후 가속하며 내려가면 된다. 사실 같은 심리를 표현만 달리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 ③ 인물의 행위나 발화가 반복되면 : 중요하다. 체크해두면 좋다.

5) ‘변화’는 언제나 중요하다.

① 시간 > 공간 변화

- 현대소설에서는 시간 변화가 중요하다. 특히 순차적인 것보다 회상 혹은 역전적 구성일 때 중요하다.
- 공간 변화는 중요한 경우, <보기>를 통해 물어볼 수 있다.

② 인식과 태도의 변화(=주제)

- 현대소설에서 인식과 태도의 변화는 소설의 주제다.
- 인식과 태도의 변화에는 두 가지가 수반된다. 1) 계기 2) 변화의 조짐
- 계기는 소설의 주된 사건이 되고, 변화의 조짐은 밑줄을 쳐서 이 행위나 소재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자주 물어본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한수달] 국어 Preview Training

[4주차 문학 수업용 해설]

[이승모T의 수업용 해설 활용법]

- 이 해설은 현장 강의의 해설을 글로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한 것입니다. [S1]을 풀고 나서 이 해설을 보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 가지면 됩니다.
- 해설이 납득이 되면 받아들이시면 되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것들은 질문하시면 됩니다.(한수 온라인)
- 현대시의 경우,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개인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너그럽게 받아들이주시면 수능 때 좋은 일 있을 거예요. 반말로 쓰는 것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길이가 너무 길어짐을 방지하는 차원입니다.^^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반드시 성취한다.

[4주차] 문학 수업 지문

연습 훈련 1. 아버지의 땅(2004학년도 9월 모평)

1. 현대소설 TEXT 접근의 기본 전제

- 소설 : 작품 외적 자아의 개입이 있는(= 서술자 있음) / 자아와 세계의 대결(= 갈등)
 - 소설 지문은 발췌문이다. / 따라서 (잉여)가 많다. → 가속 or 명료화 → **축/허/가/기!!**
 - 소설 지문을 읽는다는 것 : 인물의 (상황)과 (심리)를 파악하는 것
- 상황 ① [앞부분의 줄거리] 1) 상황 2) 관계 3) 성격
 - 내용 설명형 <보기>
 - <보기>부터 읽고,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상황이나 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지문으로 들어가자
 - 심리 → 보편적

현대소설 해설을 읽기 전, 현대소설 TEXT 분석 필기노트를 읽어보고 이 해설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수업 내용 주요 사항]

- 현대소설을 읽는다는 것은 인물의 상황과 심리를 파악하는 일이다.
- 현대소설은 발췌문이다. 잉여가 많다. 따라서 **축허가**며 읽는 것이 좋다.
- EBS 연계(전체 줄거리 학습) → <보기> 읽고 → [앞부분의 줄거리] 읽고 지문을 들어가면 오히려 못 읽기가 더 힘들다.(축허가기)
- 장면 단위로 끊어 읽기
- '나' → '내' 얘기 → 반드시 나에게 '문제가 있다.'
- 변화는 언제나 중요하다.

<보기>부터 읽고 지문을 읽습니다.(축허가기)

< 보기 >



한국 전쟁 유해 발굴단은 새로 발견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해 이진석 노인에게 전화를 건다. 연락을 받은 이진석 노인은 지난날을 생각한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피난을 가던 진석과 형 진태는 강제 징집되어 같은 부대에 배속된다. 진태는 동생을 살려 귀가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싸워 전쟁 영웅이 된다.

그러나 비극적 운명이 그들 형제를 기다리고 있다. …… 유해가 있는 곳에 도착한 진

석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녹슨 만년필을 보며 “5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라고 외치며 눈물을 흘린다.

<보기>를 먼저 읽으면 맨땅에 헤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보기>부터 가볍게 읽으면, 우리에게 중요한 상황이 하나 있다. 바로 한국 전쟁이다. 즉 6.25 전쟁과 관련된 소설일 거라고 바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한국 전쟁 = 6.25 전쟁이네.’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6.25와 관련된 소설이 수능에 출제되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알고 있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결국 6.25 전쟁 관련된 소설이 출제되면 보통 흐름은 두 가지 양상으로 흘러간다.

- 전쟁의 폭력성, 이념 대립으로 인한 비인간적 현실 고발
- 용서, 화해, 포용 등 인간성 회복(휴머니즘)

그러니까 전쟁을 소재로 한 소설은 대체로 ① 당시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거나, ②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거나 전쟁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쪽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시험 때 이것을 의식적으로 떠올리기보다는 아예 공감감, 즉 무의식에 잘 넣어두고, EBS 연계 공부를 할 때든 시험 때든 6.25 관련 지문이 이라면 이렇게 축허가 보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누군가가 흰 타올과 신문지를 가져왔다. 노인은 뺨조각을 하나씩 집어 들고 수건으로 흠을 닦아낸 다음 그것을 펼쳐진 신문지 위에 가지런히 정리해 놓기 시작했다.(상황)

“그렇다면 이 치도 아마 빨갱이였겠구만, 안 그래요?”

소대장이 지휘봉의 뾰족한 끝으로 쿡쿡 찌르듯 유해를 가리키며 말했다. 인사제가 되물었다.

“어쨌서요.”

“산을 타고 도망치던 빨치산들이 그리 많이 죽었다잖아. 이 치도 보기엔 군인은 아니었을 것 같고, 그렇다고 근처의 주민이었다면 가족이 있을 텐데 입자 없이 이 꼴로 팽개쳐 뒀을라구.”

“그걸 누가 압니까. 그때야 워낙 피차에 서로 죽고 죽이던 판인데.”

-----끊어 읽기

국어 영역

[너와 나의 실전 독해]

- ① 현대소설을 읽는 것은 인물의 '상황'과 '심리'를 파악하는 것이다.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 대전제가 항상 방법보다 우선한다. 어떻게 읽든 일단 인물의 상황과 심리를 잘 파악하면 되는 것이다.
- ② 노인이 '유해를 발굴'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소한 이만큼은 읽혔어야 한다.
- ③ '빨갱이'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쉽게 말해 북한 쪽을 부정적으로 지시하는 표현이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념대립이 남아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그때였다. 꾸그려 앉아서 손을 움직이고 있던 노인이 불쭉 소리치는 것이었다.

“어허, 대관절……, 대관절 그게 어땠다는 얘지요. 죽어서까지 윈, 아무리 이렇게 죽어 누운 다음에까지 이쪽이니 저쪽이니 하고 그런 걸 굳이 따져서 무얼 하자는 말이오. 죽은 사람이 뭇을 알길래……, 죄다 부질없는 짓이지. 쯔쯔.”

노인의 음성은 낮았지만 강하고 무거웠다. 그러면서도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뺏조각에 묻은 흙을 정성스레 닦아내고 있었다. 무슨 귀한 물건마냥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신중히 손질하고 있는 노인의 자그마한 체구를 우리는 둘러서서 지켜보았다. 모두들 한동안 입을 다물었고, 나는 흙에 적셔진 노인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땡속에 누운 사람의 잠을 살아 있는 사람이 깨워야 되겠소. 또 그럴 수도 없는 법이고. 원통한 녀이니 죽어서라도 편히 눈감도록 해야지. 암, 그것이 산 사람들의 도리요……. 하기는, 이렇게 불편한 꼴로 묶여 있었으니 그 잠인들 오죽했을까만.”

[너와 나의 실전 독해]

- ① 수능에 출제되는 소설은 전문이 아니라 발췌문이다. 발췌를 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출제자의 의도가 발췌에 이미 반영이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발췌를 하려다보니 어쩔 수 없이 같이 딸려오는 부분이 생긴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우리가 실전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후자는 현대 소설은 잉여가 많다는 뜻이니, 효율적으로 읽고 싶다면 어떤 부분은 가속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 된다. '그때였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본격적으로 말을 하려는 것이 된다. 사실 실전에서 우리가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출제자는 '그때였다.'부터 발췌를 하고 싶었을 것이다. 단 이 상황을 다짜고짜 제시할 수 없으니 '그때였다.' 전 내용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때였다.', '하루는', '어떤 날은' 등 장면을 지시하는 표현에 익숙해지자. 이게 본론이다.
- ② 노인의 첫 네 줄짜리 발화는 전부 밑줄 치고 차분히 읽는다. 우선 방법적인 것부터 얘기하면 긴 발화는 감속이다. 한 사람의 발화가 길면 그곳에 상황, 심리, 성격이 담기게 된다. 발화가 짧게 짧게 왔다 갔다하는 것은 가속이나 하며 후딱 내려가면 되지만, 발화가 긴 것은 꼭 감속하는 습관을 갖자.

“어허, 대관절……, 대관절 그게 어땠다는 얘지요. 죽어서까지 윈, 아무리 이렇게 죽어 누운 다음에까지 이쪽이니 저쪽이니 하고 그런 걸 굳이 따져서 무얼 하자는 말이오. 죽은 사람이 뭇을 알길래……, 죄다 부질없는 짓이지. 쯔쯔.”

중요하니까 다시 읽고, 익숙해지자. 이 발화는 결국 노인의 생각이지만, 사실상 누구의 생각일까? 그렇지. 작가의 생각이다. 즉 이런 것을 주제의식이라고 한다. 이미 이 소설의 주제가 나온 거다. 이쪽 저쪽 따지는 게 중요하냐. 다 부질없다. 즉 이 소설이 인간성 회복, 혹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자 쪽으로 가게 됨을 말하는 것이다.

- ③ 노인의 두 번째 발화 역시 주제의식, 작가의 생각이다. 즉 노인은 작가의 생각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우리가 이것으로 챙겨야 하는 것은, 6.25전쟁 관련 소설에서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냐고 주장하는 인물 혹은 이념대립에 반대하는 인물은 작가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고,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인물이라는 거다. 당연히 그 사람의 말은 중요하겠지? 이미 소설의 주제가 나왔다. 이제 그만 편 가르고 서로 좀 이해하고 인간성 회복하자는 쪽의 소설이다.

노인은 어느 틈에 꾸짖는 듯한 말투로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두개골과 다리뼈를 꼼꼼히 문질러 닦은 뒤, 노인은 몸통뼈에 묶인 줄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완강하게 묶인 매듭은 마침내 노인의 손끝에서 풀리어졌다. 금방이라도 찢겨 찢겨 쇠소리를 낼 듯한 철사줄은 싱싱하게 살아 있었다. 살을 녹이고 뼈까지도 녹슬게 만든 그 오랜 시간과 땅 밑의 어둠을 끝끝내 견뎌내고 그렇듯 시퍼렇게 되살아 나오는 그것의 놀라운 끈질김과 냉혹성이 언뜻 소름끼치도록 무서움증을 느끼게 했다.

노인은 손목과 팔에 묶인 결박까지 마저 풀어낸 다음 허리를 펴고 일어서더니 줄 묶음을 들고 저만치 걸어 나갔다. 그가 허공을 향해 그것을 멀리 내던지는 순간, 그는 까닭 모르게 마당가에서 하늘을 치어다보며 서 있는 어머니의 가녀린 목 줄기와 그녀가 아침마다 소반 위에 떠서 올리곤 하던 하얀 물 사발이 눈앞에 떠올랐다가 스러져버리는 것이었다.

----- 끊어 읽기

[너와 나의 실전 독해]

- ① 굳이 이렇게까지 상황 파악을 해 보면, 유해를 발굴했는데 그 유해에 철사줄이 묶여 있었던 것 같다. 심지어 몸통에 묶여 있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죽을 때 묶인 채로 죽었다는 말이 되겠지. 전쟁 상황에서의 폭력성을 잘 보여주는 상황이다. 철사줄이 그걸 나타내는 것이 될 거고, 어쨌든 이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상황 파악은 명확히 하자. 노인이 유해에 묶인 철사줄을 풀어냈다.
- ② 노인이 철사줄을 멀리 던지자마자, 갑자기 '나'는 어머니를 떠올렸다. 우리는 '나'가 왜 갑자기 어머니를 떠올렸는지 지금 알 수 없다. 언제 알 수 있을까? 중략 이후에 알 수 있을 거다. 쉽게 말해 중략 이전에 뭔가 해결이 안 된 것들은 중략 이후에 해결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중략 이전에서는 뭔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어도 일단 상황이나 파악하고 결과나 받아들이면서 내려가는 것이 중요하고, 중략 이후에서는 오히려 속도를 줄이고 차분히 읽는 습관이 중요하다. 더 중요한 얘기는 중략 이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중략 이전에서는 떡밥을 뿌리고, 중략 이후에서는 떡밥을 회수하는 거다.
- ③ 배운 걸 써 먹자. '나'가 나왔다. 표시하자. 내용은 두 가지다 내 얘기하거나 남 얘기하거나, 아직 알 수 없다. '나'가 나왔을 때 내 얘기 같으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고, '나'가 나왔을 때 남 얘기하면 남이 조금 이상하거나 특이한 거다. 당연히 이상하거나 특이한 것은 소설 끝에 반드시 해소가 될 것이다. 즉 우리는 이 사이에 제시된 내막에 집중하며 읽으면 된다. 보통 1인칭 관찰자는 중략 이전에 '남'의 이상하거나 특이한 면모가 제시되고, 중략 이후에 내막이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 당연히 중략 이후에 집중해야겠지?
- ④ 중략 나오면 끊는 습관을 들여라.

(중략)

아아,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그토록 오랫동안 두군개를 기다려왔었음을. 「내 유년 시절의 퇴락한 고가의 마루 밑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음습하고 불길한 냄새와 함께 나를 쏘아보고 있던 한 자매의 눈빛을, 그리고

국어 영역

청년이 된 지금까지도 가슴을 새까맣게 그을려 놓으며 깊숙한 상흔으로만 찍혀져 있을 뿐인 그 증오스런 사내의 이름을, 어머니는 스물다섯 해가 넘도록 혼자서 불래 불씨처럼 가슴속에 키워오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한테 그 사내는 다른 아무것도 아니었다. 다만 곱고 자상한 눈매로서만, 나직한 음성으로서만 늘 곁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너와 나의 실전 독해]

- ① 어머니가 누군가를 기다려왔던 상황이다. 상황 파악부터 하자.
- ② 설명을 읽기 전에 「 」 부분을 가볍게 한 번 읽기를 바란다.
- ③ 어머니는 누군가를 기다려왔다. 그것이 한 사내, 증오스런 사내, 그 사내로 계속 표현되고 있다.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기에 각각 구별하며 표시했지만, 우리는 읽을 때 최소한 이 표현들이 전부 아버지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상황 파악은 '어머니가 아버지를 계속 기다려왔었구나.' 정도이다.
- ④ 다만 배운 걸 써먹어보자. '나'가 나왔고 '내 유년시절'이라고 했으니 '내' 얘기다. 그러면 나한테 뭐가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했다. 우리는 문제 상황이나 찾으면서 읽으면 되는데 이미 이 부분에 문제가 하나 제시되었다.
아버지를 증오스런 사내라고 부르고 있다. 이거 문제다. 정확히는 아버지로 인해 청년이 된 지금까지도 상처를 받고 있다는 상황이 문제가 된다.

하지만 그녀가 울고 있는 건 그 미련스럽도록 끈질긴 기다림 때문만은 아니었으리라. 아니, 사실상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터였다. 그녀의 기다림이 얼마나 까마득하게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으로 자꾸만 자꾸만 밀려나가고 있는 것인가를 말이다. 스물다섯 해의 세월이, 스스로 묶어 놓은 그 완고한 기만이 목에 잠기어 흐느낌도 없이 지금 어머니는 울고 있는 것이었다. 밥상을 받아놓은 채 나는 고개를 처박고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우리 가족의 그 오랜 어둠과 같은 미역가닥이 국그릇 속에서 멀쩡게 식어가고 있을 뿐이었다.

----- 끊어 읽기

[너와 나의 실전 독해]

- ① 상황 파악부터 하자. 어머니는 울고 계시고 나는 고개를 처박고 있는 상황이다. 실전에서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건 파악하겠지.
- ② 혹시 밑줄 친 부분에 문제가 하나 더 보이냐? 그러니까 '나'가 나오고 내 얘기가 싶으면 나에게 있는 문제나 찾으면서 읽으면 된다. 문제를 찾고자 하면 문제가 보인다. 여기서는 '우리 가족의 그 오랜 어둠' 이것이 문제가 된다. 결국 아버지로 인해 우리 가족이 오랫동안 어두웠다는 얘기가 되니까.
- ③ 이렇게까지 실전에서 생각하기는 어렵겠지만, 한 번 생각해보자. 혹시 지금 무슨 날인 것 같니? 미역가닥이 국그릇에 있으니 미역국이고 아마 생일날인 것 같다. 그럼 누구 생일일 것 같니? 그렇지. 아빠 생일이야. 그러니까 어머니는 25년 동안 아버지의 생일을 챙겨왔던 거지. 하지만 내 생각에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굳이 이 상황을 정리해보면, 어머니가 또 아버지의 생일을 챙기니까 '나' 입장에서는 화가 난 거지. 아버지는 어차피 돌아오지도 않을 거고, 나한테는 아버지는 상치만 준 사람인데, 왜 생일을 챙기나 싶겠지. 그래서 어머니한테 짜증을 냈을 거고 어머니는 그래서 울고 있는 걸 거야. 물론 이렇게까지 실전에서 읽을 수는 없다. 다만 여러분들의 명확한 이해를 위해 설명한 것뿐이다. 우리는 그냥 어머니와 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이 와중에 문제 상황이나 하나 보이면 된다.

----- 끊어 읽기

이제 노인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새 수북이 쌓인 눈을 밟으며 나는 오던 길을 천천히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깨에 뼨 소총이 수통과 부딪치며 찢렁찢렁 소리를 냈다. 나는 어깨로부터 전해오는 그 섬뜩한 쇠붙이의 촉감과 확실한 중량을 새삼스레 확인하고 있었다. 그리고 항상 누구인가를 겨누고 열려 있는 총구의 속성을, 그 냉혹함을, 또한 그 조그맣고 둥근 구멍 속에서 완강하게 파리를 틀고 앉아 있는 소름끼치는 그 어둠의 깊이를 생각했다.

[너와 나의 실전 독해]

- ① 이제 노인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보면 뭐해야 되니? 그렇지. 바로 끊어야지. 내가 굳이 이 끊어 읽기를 더욱 강조하는 건, 이 전까지 어머니를 생각한 건 회상이었다는 걸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소설에서 시간 변화는 중요하다. 특히 시간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때와 거꾸로 갈 때, 뭐가 중요할까? 거꾸로 갈 때가 압도적으로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 '회상' 혹은 '역전적 구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거는 <보기>든 뭐든 안 주고 그냥 다짜고짜 그런지를 물어보니까. 우리가 지문을 볼 때 보이면 바로 체크하는 게 좋다는 거다. '회상'은 언제나 중요하다. 최소한 '노인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를 보면 '아 어머니 얘기 한 거는 회상이었구나.' 정도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다.

까우욱. 까우욱.

어느 틈에 날아왔는지 길 옆 밭고랑마다 수많은 까마귀들이 구물거리고 있었다. 온 세상 가득히 내려 쌓이는 풍성한 눈발 속에 저희들끼리만 모여서 새까맣게 구물거리며 놀들은 그 음산함과 불길함을 역병처럼 퍼뜨리고 있는 것이었다.

① 얼핏, 쏟아지는 그 눈발 속에서 나는 얼어붙은 땅 밑에 새우등으로 웅크리고 누운 누군가의 몸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다. 아버지였다. 손발이 묶인 아버지가 이따금 돌아누우며 낮은 신음을 토해내고 있었다. 나는 황량한 들판 가운데 서서 그 몸집이 크고 불길한 새들의 찢렁거리는 날갯짓과 구물거리리는 모습을 오래오래 지켜보았다.

머리 위로 눈은 하염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함박눈이었다. 굵고 탐스러운 눈송이들은 세상을 가득 채워 버리려는 듯이 밭고랑을 지우고, 밭둑을 지우고, 그 위에 선 내 밭목을 지우고, 구물거리리는 검은 새떼를 지우고, 이윽고는 들판과 또 마주 바라보는 거대한 산의 몸뚱이마저도 하얗게 하얗게 지워 가고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새벽마다 샘물을 길어 와 소반 위에 떠서 올려놓곤 하던 바로 그 사기 대접의 눈부시도록 하얀 빛깔이었다.

[너와 나의 실전 독해]

- ① ①은 상상일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상상이다. 만약 이게 현실이면 소설 내용 되게 이상해진다. 아버지의 유해를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 ② 이후의 상황은 눈이 계속 내린다. 이 눈은 온 세상을 하얗게 지워 버리고 있다. 이것은 현실이다. 이 정도 상황 파악만 하고 일단 문제를 풀면서 더 이야기를 해보자.

- 임철우, 「아버지의 땅」 -

국어 영역

1.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버지로 인한 '나'의 암울한 심리를 강화한다.
- ② '나'가 아버지의 유해를 찾아 나설 것임을 예고한다.
- ③ 아버지 세대의 아픔을 '나'가 수용하게 됨을 암시한다.
- ④ 아버지를 죽게 한 세력에 대한 '나'의 대결 의지를 강조한다.
- ⑤ 아버지의 죽음을 확인하지 못한 '나'의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실전 훈련 1번 문제 답 : ①

결국 ①이나 ③이나가 관건이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다른 것을 선택한 학생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 ①과 ③ 중 하나를 골랐을 것이고, 둘 중 하나를 고민했을 수 있다. ①을 고른 것도 분명히 일리가 있다. ㉠을 돌아가보자.

①얼핏, 쏟아지는 그 눈발 속에서 나는 얼어붙은 땅 밑에 새우등으로 웅크리고 누운 누군가의 몸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다. 아버지였다. 손발이 묶인 아버지가 이따금 돌아누우며 낮은 신음을 토해내고 있었다. 나는 황량한 들판 가운데 서서 그 몸집이 크고 불길한 새들의 펄렁거리는 날갯짓과 구물거리는 모습을 오래오래 지켜보았다.

'나는 황량한 들판 가운데 서서~오래오래 지켜보았다.' 이것을 보면 충분히 암울한 심리가 강화되는 것도 맞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①과 ③을 고민하더라도 왜 ③을 답으로 골라야 하는지를 지금부터 세 가지로 설명해보겠다.

1) '감'

허망하게 들리겠지만, '감'이다. 즉 문학을 좀 잘 풀고 '감'이 있는 학생들은 어쨌든 답을 ③으로 고르게 된다. 물론 이걸 가지고 '감이 있는 학생이다 혹은 없는 학생이다.'를 재단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이런 소설에 대한 감이 있는 학생들은 고민을 해도 ③을 고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한 가지 큰 착각을 하는 것이 '감'이 마치 선천적으로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어에서의 '감'은 후천적인 것이고, 경험적인 것이다. '감'이라는 걸 단순히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사회, 문화적 배경, 책을 읽었던 경험 등 많은 것들에서 나오는 무의식의 영역이다. 우리가 문학에서 '감'을 배제하고 무조건 따지면서만 풀겠다는 것은 시험 때 시간을 못 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뜻과 같다. 당연히 '감'도 필요하고 무의식의 영역인 '감'이 제대로 작동 못할 때의 의식적인 매뉴얼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다. 그럼 어떤 학생들이 ③을 '감'으로 선택할까.

- <보기>를 읽으면서 6.25라는 것이 무의식으로 들어왔고, 6.25 전쟁 소설은 대개 서로를 이해하는 식으로 끝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학생.

- 지문을 읽을 때 '노인'의 발화를 읽으면서 무의식적으로 이것이 주제일 거라고 느꼈던 학생.

이 둘은 어쨌든 끝날 때에는 뭔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식으로 끝나야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①과 ③을 고민하더라도 우리는 ③을 고르게 되어 있다. 이런 것을 공통감이라고 한다.

2) '변화'를 인지할 수 있다면.

오늘 수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인데, 변화를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학에서의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수업 때 배운 걸 적용하면 변화가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①얼핏, 쏟아지는 그 눈발 속에서 나는 얼어붙은 땅 밑에 새우등으로 웅크리고 누운 누군가의 몸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다. 아버지였다. 손발이 묶인 아버지가 이따금 돌아누우며 낮은 신음을 토해내고 있었다. 나는 황량한 들판 가운데 서서 그 몸집이 크고 불길한 새들의 펄렁거리는 날갯짓과 구물거리는 모습을 오래오래 지켜보았다.

지금부터는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 답은 밑에 공개할 테니, 잘 생각해보자. 인식과 태도의 '변화'에는 계기가 필요하다. 굳이 생각해보면 아마 이 소설에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있다면 그 계기는 철사줄로 묶인 유해를 '나가 보게 된 것이 될 것이다. 이걸 보고 나서 '나는 과거 회상을 하고 그리고 현실로 돌아온 것이다. 그럼 문겠다. ㉠에는 인식이 미묘하게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말이 하나 있다. 스스로 읽어 보고 체크한 후, 답을 보자.

답은 '아버지였다.' 이거다. 혹시 변화라는 것을 눈치챘는가? 분명히 아까 과거 회상할 때에는 증오스런 사내였다. 회상이 끝난 후, 아버지였다고 하고 있다. 미묘한 호칭의 변화일 뿐이지만, 엄청난 인식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회상 전까지는 증오스러운 사내였을 뿐이지만 지금은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변화를 찾기 쉽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사실 상 최초 지문 읽을 때 보이는 건 쉽지 않다. 다만 선택지를 보고 ㉠에 돌아갔을 때 최소한 변화를 인식하려면, '증오스런 사내'를 문제로 인식하고 이것을 각인해야 한다. 즉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나' 나왔고, '내' 얘기고 그러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겠지? 이렇게 좁혀가며 읽었으면 증오스런 사내가 문제로 강하게 각인됐을 것이고, 그렇다면 선택지를 보고 ㉠을 차분히 읽고, '아버지였다.'를 보면 변화가 보였을 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소설에서 정말 중요한 변화니까 꼭 해설 읽어보고 이해해보도록 하자. 이런 경험이 쌓여 비슷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거다.

3) '눈'의 의미

눈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어도 사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른다. 보통 '눈'은 문학에서 긍정적인 의미로도,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된다. 긍정적일 때에는 따뜻함, 포용, 순수 이 정도의 의미로 쓰이고, 부정적일 때에는 시련, 고난, 위선 등의 의미로 쓰인다. 우리는 어차피 소설이 어떻게 끝나가는 지만 판단하면 된다. 결국 ㉠도 끝나가는 쪽이기 때문에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이 ①인지 ③인지 결정될 수 있다는 거다. 지문에서의 '눈'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머리 위로 눈은 하염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함박눈이었다. 굵고 탐스러운 눈송이들은 세상을 가득 채워 버리려는 듯이 발고랑을 지우고, 발뚧을 지우고, 그 위에 선 내 발뚧을 지우고, 구물거리는 검은 새떼를 지우고, 이윽고는 들판과 또 마주 바라보는 거대한 산의 몸뚱이마저도 하얗게 하얗게 지워 가고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새벽마다 샘물을 길어 와 소반 위에 떠서 올려놓곤 하던 바로 그 사기 대접의 눈부시도록 하얀 빗갓이었다.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알겠지만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다. 모든 것들을 지워버리고 덮는다는 의미로, 포용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면 답을 ③으로 고를 수 있다.

내가 이 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한 것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경험적인 감으로 ③을 고르든지, 문제가 보여서 변화를 감지해서 ③을 고르든지, 어떻게 끝나는가에 주목해서 돌아가서 읽어봤더니 '눈'이 긍정적 의미이니까 어쨌든 좋게 끝나보다 해서 ㉠도 긍정이겠지? 하고 ③을 고르든지. 무엇이 됐든 답을 고르면 된다. 그 와중에 나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풀었으면 좋을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감'으로 그냥 잘 찢고 넘어갔으면 한다. 감으로 명확하게 ③적었으면 사실 이래저래 생각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 전쟁 소설에 대한 공통감을 무의식에 심도록 하자.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반드시 성취한다.
 다만 알고 싶은 강의에서 모두 알고 싶은 강의를 될 때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입니다.